

[목회자 모임-히브리서]
7. 사도시며 대제사장

2018. 8. 3. 이현래 목사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3:1).”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1) 사도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꼭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보다도 나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이다.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내보내준 사람이 사도이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사도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갈 때는 사도의 입장에서 간다. 사도는 다른 소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다. 하늘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니까 뭘 의논하러 온 것도 아니고 토론하러 온 것도 아니고 다른 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무엇을 의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토론하러 가는 것도 아니다. 내가 받은 위로부터 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간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위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래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 아무리 회의하고 토론하고 별 것을 다해 보아도 땅의 문제는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쟁쟁 가물어서 땅이 갈라지고 논밭의 작물이 마를 때 땅에서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된다. 비가 와야 해결이 된다. 농사를 위해서 비를 가지고 온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사도이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다.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사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볼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었다. 하지만 거기서 복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셨어도 소용이 없다. 그것이 복으로 발견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야 사도가 된다.

옛날에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했는데, 다 좋은 말씀을 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했다. 그런데 초점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생각해보면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겠다. 성경을 보더라도 무엇을 찾았는지를 모르겠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찾지 못하면 다른 책과 다를 것이 없다.

복음이 단순히 죄를 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인생에게 무엇이 복된가를 발견해야 된다.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겨울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도저히 나무를 할 것이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짐을 해 갖고 나온다. 그 사람 눈에는 마른 가지 같은 것이 보인 것이다.

교회에서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를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다.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2~3개씩 찾아온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왜 찾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 뭔가 잘못 찾았던 모양이니까 감추어놓은 것이 발견이 안 된 것이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럴 것이다.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복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발견한 사람도 있고, 율법을 발견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이다. 성경 안에 별별 말이 다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문학의 지혜를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역사적인 지혜를 찾는 사람도 있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목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만일 하나님이 성경을 인류에게 선물로 준 책이라면 복을 주려고 준 것이니까 복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누가 성경을 잘 주석하는가? 누가 성경을 잘 해석하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파도 갈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심지어는 잘못 봤다고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누가 잘 본 사람인가? 나는 지금 와서 결론이 난 것이 복을 발견한 사람이 잘 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성경을 읽어서 뭘 하겠는가? 땅에 있는 이야기밖에 모르면 보나마나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논어나 맹자를 보면 좋은 말이 얼마나 많고,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많다.

그렇다면 성경을 별로 재미도 없는 책인데 왜 보겠는가? 거기서 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도가 되지 못한다. **성경에서 복을 발견한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이 안 되는 것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생활지도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은 다른 데도 다 있는 것이니까 소용이 없다. 이런 시각에서 성경을 보면 복이 수두룩하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복이다.

우리 교회 자유토론방을 보면 연구를 많이 하는 모양이다. 학자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는 누구이고, 서신서에 나오는 예수는 누구이고, 또 기독교가 전하는 예수는 누구인지를 세심히 연구하는 모양이다. 연구를 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차라리 과학을 연구하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과학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성경에서 무슨 혜택을 받는가? 복을 찾지 못하면 아무 것도 가치가 없다. 창세기 1장 1절만 하더라도 생각할수록 복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말이 없으면 내 인생은 어디서 시작하겠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는 이 말이 있으니까 내 인생의 기점이 생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인생의 출발점이 생기고 인생의 목표가 생긴다.

지난번에 중국학생 2명이 왔다. 교회를 다닌 학생들이어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이 얼마나 복인가! 나는 맨 처음에 그 말씀 때문에 복잡한 머리가 정리되었지만 그때는 사실 복음이라는 생각을 못했다.

사실 그것이 복음이었다. 내 머리가 복잡했다. 왜냐하면 찾고 싶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알고 싶은 것을 성경에서는 알 수가 없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것이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그래서 완전히 혼돈에 빠졌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싹 정리가 되었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일 일도 모른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눅12:20).” 하면 아무 말도 없는 사람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우주가 어떻게 천당이 어떻게 하나님이 있냐 없냐하고 있었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그 복잡한 머리가 싹 정리가 되었다.

복잡한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인생이 너무 단순해졌다. 참 이상하다. 그 한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싹 정리가 되었다.

대구에 있을 때 어떤 조숙한 중학생이 있었다. 그 학생이 와서 목사님, 고민이 있어서 죽겠다는 것이다. 무슨 고민이냐고 했더니 여학생을 사귀었는데 이 여학생에게 다른 남학생이 또 생겼다는 것이다. 그 여학생이 왔다갔다 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것이다.

이번 금요일까지 그 여학생이 누구를 사랑하고 사귈 것인가에 대한 가부간의 확답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 날을 기다리려고 하니까 너무 지루하고 괴롭다는 것이다. 일각이 여삼추라고 하더니 그런 식이 되는 것이다. 일부러 그 일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다.

내가 그 학생에게 성경에 어떤 부자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 소출을 많이 거두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저장해야 쥐도 먹지 못하고 도적도 맞지 않을까를 고민하여 잠을 못 자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오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눅12:20).**”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그 말이 꼭 자기 말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좌우지간 갔다.

그 뒤로 보이지 않다가 스무 살이 넘은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우연히 병원에서 만났다.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왜 병원에 있느냐고 하니까 오토바이를 타다가 잘못되어 입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옆에 간호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 여학생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사람마다 고민도 있고 번민도 있는데, 그 아이는 그것이 중학생 때의 번민이었다.

한 말씀만 있어도 사람이 확 돌아설 수가 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만 있어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보통 일인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보통 일이 아니다.

중국학생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했다. 1시간 동안 그 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할 말이 너무 많은 이유가 그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줄 것이 있다. 내가 복음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는 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 인생을 모른다. 창세기 1장 1절을 모른다. 그러면서 신학을 한다. 온갖 신학을 섭렵하고 다닌다. 그렇게 신학을 하면 뭘 하겠는가? 그것을 다 섭렵하면 뭘 하겠는가?

신학도 갈수록 복잡해지는 모양이다. 철학도 갈수록 복잡해져서 답을 찾지 못하

고 있는데 신학도 역시 마찬가지로인 모양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려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인데 갈수록 몰라지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니깐 그것을 찾아다니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의문만 잔뜩 가진 사람이 되게 되고, 남 앞에 가면 쓸데없는 소리만 계속 하게 된다. 자기에게도 불필요하고 남에게도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복음을 주기 위해서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 부름 받았다. 어디로 보내질지는 모르지만 뭘 가진 사람을 보낼 것이다.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내가 이 복음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쓰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것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전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만일 내가 복음만 발견한다면 우리의 할 일은 얼마든지 많다.

이것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없고, 적게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도 없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늘로부터 온 소식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알아도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 이것을 모르면 인생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답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늘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다.

사람을 만나보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전부 땅의 문제이다. 땅의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답인가? 복음만이 답이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복이 막 널려있다. 인생이 가야 될 복이 널려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답이 된다. 구약성경 전체의 해답도 예수이다. 우리 인생 전체의 해답도 예수이다. 그분이 없으면 완전한 답이 없다. 구약성경을 다 알아도 그분이 없으면 답이 없다. 완전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왜 우리가 예수, 예수하는가? 그것 때문이다.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해결되지 않는다.

(2) 대제사장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라고 했다. 대제사장은 사람의 문제를 짚어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다. 제단에서 흘리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다. 백성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그 피가 들어갈 때 지성소의 문이 열려서 법궤 앞에 이르게 되고, 시은소에 그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화목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해서 거기서 화해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백성에 대해서 화해를 받았으니까 화해를 선포하게 된다.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 이렇게 했는데, 왜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려야 하는가? 송아지나 양의 피로 드리기 때문이다. 예수의 피로 드리면 완전하다고 생각한다. 예수의 피로 드리면 왜 완전하겠는가? 예수의 피로 드린다고 해서 송아지 피와 무엇이 다른가? 사람과 송아지가 다르다는 이야기이다.

나도 옛날에는 양의 피보다는 사람의 피니까 훨씬 가깝다고 생각했다. 원시 종교에서 그들이 믿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의식이 많이 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 처녀나 아이들의 심장을 빼서 신에게 바치는 일들이 있다. 좀 더 가깝게 하나님에게 접근하려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예수님도 그런 의미가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 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가? 거기서 제사장이 되었다. 이적을 행하실 때, 이때는 그분이 사도라고 볼 수 있다.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도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데서는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다. 우리 피를 어떻게 받아서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겠는가? 동물의 피를 대신 가져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다 죽어서 피를 낼 수도 없다. 아니면 우리가 다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면 되겠지만 그것도 안 된다.

이 대제사장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와 꼭 같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어디서 예수와 우리가 어디서 꼭 같이 되는가?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에서만 우리와 꼭 같이 될 수 있다. 그 자리가 아니고서는 같이 될 자리가 없다. 거기서 우리가 꼭 같이 되어서 나를 품고 나를 포함하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 외에는 달리 갈 방법이 없다.

예수님은 왜 겻세마네 동산에서 머물지 못하고 다시 골고다까지 가셔야 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보니까 겻세마네 동산까지는 사람의 자유의지가 활동할 수 있는 곳이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22:42).” 이것은 자유의지로

서의 순종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아담은 결국 이것을 못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정녕) 죽으리라(창2:17).”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를 못한 것이다.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그것을 발동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다. 이것을 인간 최고의 경지라고 해야 할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최고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은 순종이라는 것은 없다.

우리는 그것을 본 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예수님처럼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에 맡기기로 몇 천 번을 다짐하고 그렇게 생활해 왔지만 잘 되지 않는다. 어떤 정도까지는 되지만 어떤 정도에 가면 안 된다.

자기가 관찮은 것까지는 되지만 안 되는 것은 못하고 만다. 40일 금식기도도 하지만 그것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참 간단할 것 같은데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쉬웠으면 아담이 무엇 때문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겠는가?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것이 자유의지의 극치이고 결말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것을 따라서 실천한 사람이 100%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60억 인류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는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몇 명이나 가능하겠는가? 몇 %나 되겠는가? 그러므로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없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본을 보이셨지만 그러나 복음이 되지는 못한다. 만민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마 여기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시지 않았을 것 같다. 그것이 잘 되는 분은 여기에 안 오셔도 된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다.

일일이 내가 수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안 될 것이다. 나도 해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었다. 우리 형제들도 나를 따라 오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되었다. 된다고 해도 아주 극소수이다. 안 된다.

그러면 복음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종교밖에 안 된다. 종교의 최고점이 이 바로 겐세마네 동산이라고 생각한다. 최고의 종교, 우러러 보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는구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면 종교가 된다.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따르는데, 따르고 섬긴다고 해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노력을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적인 제자는 되겠지만 그분이 원하는 내가 되기는 어렵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요14:20).” 이것이 안 된다. 나는 겻세마네 동산은 종교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의 종교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겻세마네 동산에 대한 노래도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겻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다. 고3학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하는 사람이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는가? 그런 교회가 이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한심하다. 우리가 생각해도 한심하다.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갈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밖에 못 간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마지막에 재물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자기가 내려놓아지지 않는다. 종교는 끝없이 노력해야 되고 끝없이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되고 위선이 된다. 나는 죄인이고 더 이상 갈 수 없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자리밖에 갈 수가 없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우리는 구원 받은 죄인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 우리가 있어서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구원 받은 죄인이라는 말이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분이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내가 잘 나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가 되어서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만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은혜로운 해석이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나를 덮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것만으로도 눈물 겹게 감사한 일이다. 내가 불가능한데 거기서 뛰고 날고 해도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까지만 와도 사람이 복이 되는가.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것이 못 된다. 그래서 골고다가 필요하다. 만일 겻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잠자지 않고 있었다라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의 기도에 참여했다라면 예수님은 골고다에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서는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것이다. 깨워놓고 또 기도를 하고 오면 또 자고 있더라는 것이다. 3번이나 그랬다. 깨워놓으면 도로 자고 깨워놓으면 도로 잤다.

왜 그런가? 그 기도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놓은 자리이다. 우리가 그 제자들보다 낫겠는가? 그 사람들은 우리의 대표자들이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이듯이 잠자던 그 제자들은 우리의 대표자들이다.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잠밖에 잘 일이 없다. 참여가 안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는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마26:41).”** 그래서 그만 일어나 가자고 하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냥 가자. 일어나자. 할 수 없다. 골고다로 가야 되겠다는 말이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잘 써먹는 말이다. 너가 참 마음은 원이겠지만 육신이 안 되겠구나. 이제 일어나서 가자. 어쩔 수 없다는 말이다. 여기서 멈추면 좋겠지만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가자. 나는 또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겐세마네 동산에서는 모든 인류가 참여할 수가 없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뛰어내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서 밖에 내가 참여할 수가 없다.

거기는 내 의지로 참여한 자리가 아니다. 내 자유의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 참여할 수가 없다.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도 물론 있다. 그것이 완전하다고 하더라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혹시 완전하다고 하더라도 인류 가운데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주님을 위한 순교라고 한다.

왜 다른 사람은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나를 구속할 수가 없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의 죽음은 왜 나의 구속이 되는가? 왜냐하면 순교한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순교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순교자를 따라 갈 수가 있는가? 못 따라 간다. 그 순교자 안에는 포함될 수가 없다. 그분들은 그렇게 예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것이 만일 구원이라면, 그것이 만일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은 몇 사람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안에는 나의 의지로 참

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다 의지이다. 겻세마네 동산도 의지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실패했다. 골고다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 거기까지도 자기 의지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대하다고 한다. 놀랍다고 한다. 천주교에서는 성자, 복자, 이런 이름들이 있다. 높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존경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 정도가 되면 숭배 받아도 이상이 없다.

우리와 너무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다. 왜? 의지의 차원에 있기 때문이다. 자유의지의 세계에서는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골고다까지 간 사람도 있다. 그 자유의지의 세계에서는 갈 사람도 있고 못가는 사람도 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자리에는 내 의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고 해서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뭘 버리고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죽은 자리에서 우리 본래의 위치가 발견된 것이다. 인생의 본래의 위치가 발견된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참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이라는 것이 발견된다. 우리도 원래 흠으로 지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고전1:30).”**라고 한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갔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고전1:30).”**라고 한다.

이것은 내 의지와 관계된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은 자유의지이다. 자유의지로서는 불가능한 한계에 왔다. 아담이 결국 자유의지를 다 동원했어도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그런 이상 누구도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와서 하와에게 말했다. 하와가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창3:6).”**고 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었더니 아담도 먹더라는 것이다.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하라고 할 때는 하지 않았는데,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했다. 하나님 나라는 상향식이 아니고 하향식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지 결코

우리로부터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는다. 땅에서부터 올라가면 선악과를 먹는 그 자리로 가게 된다.

사도가 왜 필요한가? 하늘로부터 온 소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가 필요하다. 세상에서 신학을 하거나 해서 인간이 행복한 어떤 것을 만들었다고 하자. 아주 그럴 듯한 것을 만들었다고 하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신학이 원래는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한다고 했을 것이다. 지금은 계시를 해석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차원까지 갔다. 왜 하나님을 만들었는가?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평화의 길을 자기들이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자기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했던 것처럼 자기들은 이 시대에 맞는 은혜, 이 시대에 맞는 복음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학이 처음에는 자연을 연구한다. 연구하여 다시 자연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과학이다. 요즘 맛이나 향기 중에 포도맛 주스는 포도가 아니다. 사과맛 주스면 사과가 아니다. 사과맛을 화학적으로 연구하여 화학기호를 만들어낸다. 그것으로 사과맛과 똑같은 것을 다시 만들어낸다. 지금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사과가 되는가? 안 된다.

과당이 드링크제에 대부분 들어가 있다. 과당은 과일의 당이 아니라 전부 합성한 것이다. 과일을 당을 뽑아서 연구하여 다시 만들어낸 것이 과당이다. 과당을 먹으면 몸에 아주 좋지 않다고 한다. 과일 당 같으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짜 과일의 당인 것이다. 화학적인 과일의 당이다.

신학이 지금 이런 단계에까지 왔다. 신학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자신을 갖고 있어서 도전하고 있다. 과학과 꼭 같은 방법이다. 예수를 분석하여 다시 예수를 만들겠다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 나라를 분석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다.

앞으로 가짜 천국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가짜 하나님 나라가 나올 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이다. 과당으로 만든 교회가 나오지 않겠는가? 맛은 똑같지만 생명이 아니다.

하늘의 소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하늘의 소식을 만들어서 온다. 내가 하

늘의 소식을 받지 못하면 하늘의 소식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성경은 이제 이 시대에 낡은 것이고, 그 시대에 맞는 것이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대에 맞는 성경이 또 나와야 된다.

사람은 재주가 무한하다. 사과맛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장미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모른다. 화장품이 비싼 것은 자연향을 썼기 때문이다. 자연향을 추출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자연향과 같은 향을 넣어서化妆품을 만들면 싸다. 다 가짜를 바르고 다닌다. 진짜를 바르고 다니는 것도 위험하다. 진짜를 바르고 다니면 벌이 달라든다. 진짜 향을 바르면 벌이 오는데, 가짜 향을 바르면 벌이 오지 않는다. 우리는 속는데 벌은 속지 않는다. 꿀을 바르고 다니면 벌에 쏘인다.

대구에 오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온 몸에 벌이 딱 붙은 사진을 찍어놓았다.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한다. 몸에 꿀에 발라두면 벌이 달라붙지만 가짜 꿀을 발라놓으면 벌이 달라붙지 않는다. 벌은 기가 막히게 안다.

앞으로 가짜 꿀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옛날에는 가짜 꿀이 많았다. 요즘은 진짜 꿀이 싸니까 나오지 않는데, 옛날에 꿀이 비쌀 때는 가짜 꿀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전국에 보급했는지 모른다. 꿀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

하늘의 소식을 가지고 가지 못하면 하늘의 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간다. 기독교가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 하늘의 소식은 없고, 하늘의 소식을 본 따서 만든 소식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가게 될 것이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사도의 입장에서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우리를 포함하고 가신 분이다. 십자가 안에서 밖에는 우리를 포함할 수가 없다. 그분이 아무리 나를 데리고 가고 싶어도 그분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데리고 갈 수가 없다. 불쌍히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나를 데리고 갈 수는 없다. 우리는 그 안에서 밖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14:6).”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말이다. 그냥 길이 아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실재요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이다. 왜 그런가? 사도이시며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지 나 혼자 따로 기도하여 가겠는가? 무슨 수를 써서 가겠는가?

은혜를 입고 간다는 말은 그분 안에 포함되어서 간다는 말이 은혜를 입고 간다

는 말이 되지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간다는 뜻이 아니다. 거기는 아무리 불쌍해도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자기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고 했다. 그분 자신 안에 있지 않으면 그분이 가는 데를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분 안에서 밖에는 우리가 그분이 가는 데를 갈 수가 없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을 가겠는가? 그분 안에서 밖에는 갈 수가 없다. 임금님 앞에 가는데 손자가 귀엽다고 그 자리에 데리고 갈 수 있겠는가? 친한 친구를 임금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겠는가? 대신이 임금님 뵈러 가는데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말은 자기 안에서 포함해서 데리고 간다는 말이 지 따로 손잡고 간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 구약적인 개념 같으면 내 손을 잡고 이끌어줄 것이다.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신약 안에 오는 축복은 무엇인가? 그분 안에서 간다는 것이 신약 안에 있는 축복이다. 어떻게 그분 안에 들어가겠는가? 옛날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됐다. 항상 계시는가? 항상 계시지 않는다. 어느 때는 있고 어느 때는 없으니까 안 된다.

이제는 그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알아지니까 너무 안심이 된다.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 내가 생각하고 다닐 필요도 전혀 없다. 염려할 필요도 전혀 없다.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분 안에 있는 그 사람만 진짜이다. 다른 것은 다 가짜이다. 다른 것은 배웠거나 얻었거나 심지어는 하늘의 은사라고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전부 은사에 해당된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이 바로 주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참 그분의 본체는 아니다. 그분의 은사 안에 내가 참여할 수는 없다. 그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해서 나도 살릴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본 받으려고 애쓴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기도하면 되겠지 한다. 오해할만한 일이 참 많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마17:20).”고 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산을 옮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왜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했겠는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우리는 안 되는데 주님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대답이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는데, 주님 앞에 오니까 왜 고쳐지느냐는 것이다. 나도 그런 것을 받을 수 없느냐는 것이다.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이 너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얼마나 없는가? 겨자씨 한 알만 믿음도 없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은 잘 들어야 한다. 잘못 들으면 고생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3:1).”고 했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깊이 인식해야 된다.

전에는 곶핥기를 한 셈이다. 콩을 씹지 않고 삼킨 것과 같은 것이다. 2천년 동안 그렇게 전달되어 왔다. 이제는 이것을 종식시켜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종식시킬 사람이 없다. 우리는 별 것 아닌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이 사명을 갖고 있다.

이것도 내 의지로 한 것인가? 내 능력으로 한 것인가? 은사를 받아서 한 것인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면 다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너무 쉽다. 이것을 만민 앞에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너무나 귀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이 전파될 때까지 살았으면 제일 좋겠다. 나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해야 된다. 나 혼자 다 했으면 어떻게 좋겠는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다. 자꾸 전파해 나가야 된다. 또 여러분만 하면 되는가? 다른 사람도 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3:1).”

‘믿는 도리의’라는 말이 번역이 잘 못된 것 같다. 우리가 동의하는,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사도라는 뜻이다. 이것을 쓴 사람은 그것을 알고 쓴 말일 것이다.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사도이고 또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인식하자는 것이다.

예수를 얼마나 깊이 인식하느냐가 하늘의 소식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쉽게 전하느냐이다. 선생은 아주 머리가 나쁜 아이들에게 가장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이다.

어떤 엘리트 자매가 있다. 대구시에서 시험을 봤는데 1등으로 뽑혀서 2년 간 미국에 가서 특수한 교육을 받고 왔다. 엘리트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준 발령지가 따라지 학교에 발령을 내놓은 것이다. ABC도 모르

는 아이들만 있는 학교에 발령을 받고 속상해서 죽으려고 했다.
그 자매는 지금 영여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큰 기대를 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이런 사람을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서 머리 좋은 아이들을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교육청에서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는데 ABC도 모르는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선생이 너무 불만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무 좋은 기회라고 했다.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먹혀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라고 했다. 그러면 너는 유명한 선생이 된다고 했다. 그런 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 좋은 학교에 가려고만 생각하고, 좋은 아이들을 만나려고만 생각한다.
머리 좋은 아이들을 만나면 선생이 공부 안 된다. 진짜로 멍청한 사람을 만나야 공부가 된다. 가르치려고 생각한다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만나야 유명한 선생님이 된다.

내가 청년시절, 교회학교에서 부장을 해보았다. 조그마한 시골 예배당에 유치원 학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까지 같이 모였다. 따로 모임 장소도 없으니까 한 곳에 다 모아놓으면 동화나 설교를 하면 제대로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조용히 앉아서 들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열심히 연구를 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내가 말하는 동안 꿈쩍 않고 다 듣고 있다. 여름성경학교를 갔는데 교사대회를 했다. 저 시골 섬 교인 2~30명이 모이는 조그마한 이름도 성도 없는 교회에서 온 청년이 설교대회에서 1등을 하고 동화대회에서 2등을 했다.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고 깜짝 놀랐다.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주일학교 부장을 하다 보니까 유명한 선생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듣는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다. 못 들었으면 못 들은 대로 나는 깊이 알아야 된다. 깊이 알면 말하기가 쉽다. 잘 모르면 말하기가 어렵고, 진짜로 잘 알면 말하기가 아주 쉽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서 말을 착착 알아듣는 교회를 만나면 좋을 것 같지만 내가 발전이 안 된다. 열악한 곳에 가면 내가 발전이 된다. 40년 만에 고향에 갔는데, 그때 유치원에 다녔던 학생 같은데 바닷가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용형제가 그 사람에게 이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냐고 슬며시 물었다고 한다. 그 사람이 50대가 넘은 사람이었는데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우상이었다고 했다고 한다. 온 동네 아이들이 처음으로 우리 예배당에 다 모였다. 나는 내가 그렇게 유명한 줄을 몰랐다.

열악한 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렇게 되었다. 우리가 문경에서 여름집회를

하는데 손목사님이라는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한 분 오셨다.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는데 비는 오고 완전히 난장판이었다. 아이들은 돌아다니지 비는 오는 그런 환경이었다.

그 목사님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고 말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이력이 나서 문제가 안 된다. 그것을 보고 감탄했다. 내가 특별히 그런 사람인 것이 아니고, 나는 평소에도 아이들이 시끄러운 곳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다.

그 목사님은 연로하셔서 목회를 퇴직하신 분이니까 그런 것이 신기한 모양이었다. 도대체 이런 곳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고 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자신이 발전한다. 너무 조용한 환경에 있으면 내가 발전이 안 된다.

혹시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를 바란다. 잘 처리하면 내가 발전하게 된다.

예수님도 그런 것 같다. 제자들이 좀 더 똑똑해서 겿세마네에서 참여했다라면 골고다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까지 구속할 수가 없다. 제자들이 어부다.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따라 오기는 왔는데 겿세마네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며칠 전까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던 사람이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22:42).”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갈릴리 촌놈들에게 말이 먹히겠는가? 메시아라고 알고 따라 왔는데 잤다.

그런데 그 잠을 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교회는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쓰이게 되고, 저런 사람은 또 저렇게 쓰이게 된다.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

만일 그때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상이 얼마나 바빠졌을까? 하지만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 그 사람들이 따라 오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갈릴리 어부들이 따라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예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신 예수! 이 두 분이, 두 사명이 십자가에서 완결되게 된다. 거기서 딱 합해진다. 하늘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포함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늘의 소식을 전하면 그 사람을 예수 안에 넣어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시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우리가 또 하늘의 소식을 전하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자신 안에 다른 사람을 포함하고 가는 것이니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을 내가 포함하고 가게 된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된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이 종교와 비교가 되겠는가? 나는 이처럼 놀라운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를 해도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인간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구나. 원천적으로는 모두 한 덩어리의 흙이다. 흙인 이 인생에게 이렇게도 많은 축복을 주었는가 한다. 나는 흙을 볼 때마다 신기하다. 흙 속에서 저렇게 좋은 것이 나오는지, 아무것도 아닌 흙에서 어떻게 포도가 나오고, 어떻게 사과가 나오는지 너무너무 신기하다.

인생은 너무 신기하게 만들어놓았는데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다른 데 가서 쓰이게 되니까 아주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천사들의 조롱거리가 된다. 종교 안에서 해매고 있으면 천사들이 조롱하고 비웃는다.

원숭이들이 사람들이 서커스를 하는 것을 보고는 박장대소하며 웃는다. 자기들은 배꼽을 잡고 웃는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갯세마네 동산을 쫓아가려고 용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사탄이 박장대소하며 웃을 것이다. 우리는 비웃음거리가 된다. 우리가 당장하게 우리를 수종 들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권세 있는 자리에 있게 되면 천사들이 저절로 우리에게 수종 들게 해준다.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다 한다. 내가 아들의 위치에 있기만 하면 일은 천사들이 다 해준다. 내가 일 하려고 애를 쓸 염려가 없다. 일을 하려고 일부러 천사들을 만들어놓았다.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일하면 천사들이 할 일이 없다. 목회자들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하나님의 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일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 또 시간이 지나갔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